

인맥 관리에서 선물을 잘 활용하는 법

선물은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며, 다른 사람에게 청탁을 할 경우에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실제로, 선물을 줌으로써 관계가 낱아지거나 더 돈독해지는 수가 많다. 하지만 선물을 주는 것도 나름대로 기술이 있어야 한다.

》》 선물은 성공으로 가는 기술이다.

선물은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윤희유 같은 작용을 한다. 일본 상품이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까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인의 '선물 마케팅' 때문이다. 일본인은 사업을 할 때, 매우 꼼꼼하게 준비한다. 특히 비즈니스를 할 때는 선물이 거의 필수품이나 다름없다. 또, 사업 파트너의 취향에 따라 꼼꼼하게 마음 써 선물을 준비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협상에 임하게 한다. 작은 선물 하나가 큰 효과를 낳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익'과 '선물'이 가끔 함께 거론되지만, 흔히 선물을 주어야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선물은 투자이고 이익은 결과'인 셈이다. 이와 같이 당신도 일본인처럼 선물을 주면서 부탁한다면, 분명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일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현대사회에서는 선물을 주는 것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기술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시간, 장소, 선물 내용 따위에서 주는 사람의 꼼꼼한 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 컴퓨터에는 관련 기업이나 유명 인사의 신분, 직위, 취미, 생년월일 따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 평상시에 선물하라

인간관계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선물만큼 좋은 것은 없다. 친구 집에 선물을 들고 가면, 친구는 "뭘 이런 걸 사들고 왔느냐. 다음부터는 절대로 사오지 마라"하고 말할 수 있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친구는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좋아하는지를 선물로 판단한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순간부

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적당한 때를 잡아 당신한테 보답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선물은 어느 때 주는 것이 좋은가? 선물은 평상시에 자주 주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부탁하는 일쯤이야 사회생활에서 흔한 일인데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 선물할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사실, 선물을 주는 것은 남에게 부탁하기 위한 '복선' 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언제 선물을 줄 것인지, 당신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뒤에 선물을 주면, 상대방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선물을 보낸다면, 받는 사람은 분명 당신을 기억해 두고 언젠가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당신을 도우려 할 것이다.


>>>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우라.

중국에 “어려운 사람에게 연탄 한 장을 보낼지언정 풍족한 사람에게는 금은보화를 선물하지 마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는 뜻이다. 추운 겨울,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연탄 한 장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도움을 받은 사람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해봤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퇴직하기 전에는 연말마다 선물과 연하장이 끊이지 않고 인사를 오는 사람도 많았던 사장이 있었다. 하지만 퇴직하자 사람들은 발길을 뚝 끊고 선물 하나 보내지 않았다. 갑자기 바뀐 환경과 주위의 냉대로 외롭고 쓸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예전 부하 직원이 선물을 사들고 그를 찾아왔다. 사장은 재직 때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것에 너무 놀랐고, 그만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다. 3년 뒤에 사장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고문으로 초빙되었고, 자신을 찾아왔던 그 부하 직원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겼다. 아무런 힘도 없던 자신을 챙겨 주던 그의 꼼꼼한 배려에 깊이 감동한 사장은, 기회가 되면 그 사람에게 꼭 보답하리라고 다짐했던 것이다.

>>> 축하할 때를 놓치지 마라

친한 사이에 명절이나 경사스러운 날, 선물로 축하 인사를 하는 것은 우정을 돈독히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선물을 제때 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평소에 친구의 기념일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이따금씩 축하하면서 제때 선물을 주고 축하 인사를 해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선물을 줄 가장 좋은 때는, 상대방이 집에 있을 때다. 선물을 주는 것은 우정을 돈독히 하고 목적을 이루는 행위임이 틀림없지만, 선물 자체는 대인 관계에서 보조 구실만 할 뿐이다. 진정한 감정 교류는 상대방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때 비로소 깊어진다. 특히 남에게 부탁할 때는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LG경제연구소〉